

2023 새해 이렇게

우승희 영암군수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 건설에 모든 행정력 쏟겠다”



청년 친화적인 경제도시 구현 위해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 수립 미래교육재단 설립·창의융합교육관 유치·명문고로 지역소멸 대응

“나날이 새로워지고 빠르게 발전하는 일신월이(日新月異)의 자세로 2023년 한해, 대한민국 혁신수도 영암 건설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대내외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민 체감형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경제구축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군수는 가장 먼저 ‘모두가 잘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미래를 선도하고 청년 친화적인 경제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암군은 모두가 잘 사는 행복영암 건설을 위해 청년 친화 미래선도 경제를 꿈꾸고 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청년들이 젊은 생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다양한 시책들이 동

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이 돌아오는 영암을 위한 영암 재건 프로젝트를 펼친다. 대단위 토지 매입 및 단지 조성, 분양 등의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공영개발TF팀을 신설하고 21세기형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암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군민의 강’을 조성, 특색화된 경관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청년문화거리와 청년주택 및 마을을 조성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역소멸에 대응한 인구정책도 내놓을 수 없다. 우 군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지원금도 상향할 방침이다.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된다. 영암미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창의융합교육관을 유치, 영암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

간다. 농촌유학마을을 활성화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명문 고등학교 육성에 박차를 가해, 교육문제도 영암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인구유출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가상 현실 스포츠 시설과 영상편집 시설, 사이버 미술관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요구와 트렌드에 맞는 활동공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자주 찾는 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망을 확대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관광산업의 핵심은 경제관광이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 및 콘텐츠 발굴과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객이 지역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경제유발효과를 최우선 목표로 관광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영암형 랜드마크로 마한역사문화관광을 활성화해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영암읍성 복원과 나불도 활성화, 구림지역을 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의 중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실내스튜디오와 오픈세트장 등 지역의 관광명

소가 될 문화예술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여운재 전망대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신성장동력의 미래산업 선도,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영암군이 미래 신산업의 메카로써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개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친환경자동차 튜닝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전기차튜닝센터 조성하고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 탑재 레저선박 건조도 추진해 나간다.

또 대불국가산단 산업구조를 신재생 에너지 산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산단대개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619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선박 및 해상풍력 기자재 중심의 스마트그린 미래산단으로 탈바꿈해 서남권 경제 핵심 거점으로의 재도약을 노린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금 영암은 군민이 바라는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군민의 힘으로 혁신을 일삼고 생활화 하며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영암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목포시, 목포·신안 통합기반 조성 본격 시동

주민 주도 속 통합효과 분석 공동연구용역... 문화·관광 통합 중점

목포시가 신안군과의 통합 기반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며 전걸음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민선8기 출범 직후 서남권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발전과 30년 숙원사업인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서남권통합성장추진단을 신설·운영하며 통합에 대한 집중력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주민공감대가 부족해 무안반도 통합에 실패했던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관(官) 주도의 일방적 추진은 지양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신안군과의 통합을 추진해간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런 입장에서 자생조직간 자매결연, 김장김치 담그기, 농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민간의 교류 활성화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전개되고 있다.

시도 개별 세계자연유산 보전부부 신안군 유치 동참 등 신안군의 현안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행정에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올해도 자매결연 사회단체 확대,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민간 주도의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안군과 통합효과분석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해 통합 준비를 위한 선결 과제 및 발전 방안, 통합에 따른 불이익 등을 검토하고 법령을 보완하는 논리를 개발해 통합의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재도약의 발판이 될 통합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남도 대표 걷기여행길인 해남 달마고도를 방문한 등산객들.

해남 남도명품길 달마고도, 모바일로 즐기자

군, 이달부터 모바일 스탬프투어

해남군은 1월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달마고도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운영한다.

현재 종이 스탬프투어는 1월까지만 운영하며, 2월부터는 전면 모바일로 대체된다.

해남군은 남도 대표 걷기여행길인 해남 달마고도를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해남군은 지난 2020년부터 달마고도 스탬프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완주자에게는 완주인증서와 기념품을 지급한다.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별도의 어플 다운로드 없이 달마

고도 내 6개 인증지점(관음암터, 문수암터, 노지랑골, 도시랑골, 물고리재, 너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 지점의 인증 QR코드를 스캔하고, 인증 화면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인증샷을 촬영해 업로드하면 된다.

달마고도 완주 기념품도 새롭게 바뀐다. 기존 완주 메달 디자인을 활용한 달마고도 메달 키링과 달마고도 로고가 새겨진 배지로 구성된 기념품 세트, 완주인증서와 함께 지급된다.

달마고도 스탬프투어는 전국 걷기 여행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 매년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해 달마고도를 완주한 사람은 9200여명으로 누적 완주자 수는 1만9400여 명에 달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진도군, 설 맞이 진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연 600만원 개인 구매 가능

진도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지류형과 모바일 합산 월 70만원, 연 600만원까지 개인 구매가 가능하며, 법인과 가맹점주는 할인 구입이 제한된다.

설 맞이 10% 특별 할인은 지류형 25억원, 모바일 40억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관내 146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어플(chak)을 통해 카드 발급을 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설 맞이 진도아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판매가 지역 소상공인 등 군민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2023년에도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신안군이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접수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 마을이장에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접수하며,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계속해 거주하면서 농어업·임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임업 종사자이다.

신안군은 지급대상자 검증 후 대상자를 결정해 3~4월 중 60만원 전액을 1004점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월호

2022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23 길 위에서 길을 찾다

- 걸으며 맞이하는 계묘년의 희망
- 숲, 바다, 하늘 친구 삼아 새해의 심호흡
- 삶과 시간에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을 만나

美路味

땅끝으로 떠나는 두근두근 희망여행 해남은 '시작의 땅'이다

충무공과 범정스님 만나러 가는 길 | 새해 새 출발 다짐하는 '짚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과 '공룡박물관' | '대중사'와 '미항사' 고구마 먹인 돼지고기, 발효 소시지 | 해남 풀고구마의 클린 변신 화산재과점&카페 화산

신년 기획-2023년 문화계

새해는 비엔날레의 해

4월 광주비엔날레 9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시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다양한 기획전

올동진의 '시네마 역사' ① '해바라기서' '체르노빌'까지, 우크라이나 비극을 예견하다

에앙 초대석

'문학의 울림' 전하는 평론가 **신형철**
"시는 읽는 게 아니라 겪는 것"

신년 기획 키워드로 알아보는 2023 트렌드 **RABBIT JUMP**

에외문화기획 @ 헬싱키(상)
'발트해의 아가씨' 헬싱키 전쟁 새긴 요새가 치유 관광지로 변신

새해를 여는 화제의 전시 **이이남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전**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⑥ '도의 의인' 김광필의 학덕 기리는 대구 동동서원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③ 경기도 연천 & 강원도 고성 산 정상 '그리팅맨' 관광객에게 손짓 군사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바꾸다

기획 '제주의 눈물 담은 진실의 그릇' 4·3평화기념관에서 만난 비통의 역사, 아린 사연들